

인도네시아 2020*: 전염병이 위협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신재혁** · 박희경***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인도네시아의 피해 상황은 심각했고, 이로 인해 조코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컸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보다 경제 우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언론과 야당,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월에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는데,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축소하는 옴니버스법에 반대해 노동계는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12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됐는데, 많은 현역 정치인 자녀가 당선됐고, 조코위 대통령 역시 아들과 사위가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한편 조코위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경기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다른 인접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정치, 인도네시아 경제, 인도네시아 외교, 한-인도네시아 관계, 코로나19, 2020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조코 위도도, 옴니버스법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3045536).

** 주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shinj@korea.ac.kr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후보생, gmlrud85@hanmail.net

I. 들어가며

2020년은 2019년 4월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해당한다. 집권 2기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혹평 받는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동부 칼리만탄(East Kalimantan)에 새 수도를 건설하고,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필요한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제시했다(이지혁 2020; Fealy 2020a). 그러나 2020년의 마지막 날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 일면 기사 제목이 ‘인도네시아의 바이러스 대응은 무엇이 잘못됐는가?(What went wrong with RI’s virus response?)’였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19, 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조코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고 그의 원대한 계획 실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Syakriah 2020).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맞아 조코위 대통령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보다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한 느슨한 조치를 선택했다(Wicaksono 2020).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에 대응해 조코위 정부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언론과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Fealy 2020a; Reporters Without Borders 2020). 또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 통제 분위기를 정치적 반대파인 이슬람 세력을 탄압하는 데에도 활용했다(Prashanth 2020).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2010년 10월에는 ‘옴니버스법(omnibus bill)’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 DPR)를 통과했다. 문제는 옴니버스법이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혜택을 축소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었고, 그 결과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옴니버스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Arshad 2020).

2020년 12월에는 주지사(gubernur)와 시장(wali kota), 군수(bupati)를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Pemilihan Kepala Daerah, Pilkada)가 실시됐다. 현역 정치인 가족이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 수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았는데,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도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다(Jiao and Aditya 2020).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왕조(political dynasty)에 관한 논쟁이 한층 가열되었다.

조코위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2분기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소득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다른 인접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컸다고는 할 수 없으며,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도시 봉쇄와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 우선 정책을 고수하였다(Jefriando and Suroyo 2020). 10월에 통과된 옴니버스법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인도네시아의 외교와 한-인도네

시아 관계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도 설명하고, 그 의의를 논할 것이다.

II. 2020년 인도네시아 정치

1. 코로나19의 정치적 영향

코로나19는 2020년 초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산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2월 말까지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3월 2일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 없이 꾸준히 증가하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은 ‘끝없는 1차 유행’으로 표현되고 있다(김형준 2021).

<표 1>은 그동안 누적된 동남아시아 11개 국가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약 2억 7천만 명)를 보유한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볼 때, 인구 1백만 명당 확진자 수는 2,783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4위지만, 1백만 명당 사망자 수가 83명으로 필리핀(84명)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조꼬위 정부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인도 바로미터(Indo Barometer)가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53.8%)의 응답자는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느린 지원을 꼽았다(Ghaliya 2020).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예로 45세 이하

출근 계획을 들 수 있다. 4월 4일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학교를 폐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사회제한조치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PSBB)’가 여러 주에서 시행됐는데,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정부가 45세 이하 노동자는 코로나19 취약 계층이 아니니 출근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45세 이하가 다른 연령대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큰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한국일보 2020/05/18).

<표 1> 동남아시아 코로나19 현황(2021년 1월 3일 기준)

국가	확진	사망	완치	확진/1백만명	사망/1백만명
인도네시아	765,350	22,734	631,937	2,783	83
필리핀	477,802	9,257	448,253	4,331	84
미얀마	126,345	2,728	109,548	2,314	50
말레이시아	119,077	494	97,218	3,655	15
싱가포르	58,697	29	58,487	9,993	5
태국	7,694	64	4,337	110	0.9
베트남	1,494	35	1,339	15	0.4
캄보디아	381	0	362	23	0
브루나이	172	3	149	391	7
동티모르	46	0	32	35	0
라오스	41	0	40	6	0

출처: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ies> (검색일: 2021.01.03)

또한 정부의 느슨한 방역 조치로 인하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벌이는 등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자, 한 의사가 트위터에 올린 ‘#인도네시아 마음대로 하라(#IndonesiaTerserah)’라는 해시태그가 11월 15일까지 45,000회 언급되고(Kompas 2020/11/15), 사람들이 같은 제목의 노래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 SNS에 게시하는 등 정부에 대

한 불신을 표현하는 운동이 확산되었다(한국일보 2020/05/18).

한편 정부의 전염병 관련 지출 부족,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부족, 비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 등도 국민들의 불만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공중 보건 전문가들 역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Jefriando and Suroyo 2020).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경제가 침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옹호했다. 조코위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방역보다 경제를 더 우선시한 것이다(Wicaksono 2020).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우선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조코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보다 문제를 말하는 입을 막는 선택을 했다. 경찰에게 전염병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단속하도록 명령했고(Reporters Without Borders 2020), 8월에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국립인도네시아대학의 전염병학자 판두 리오노(Pandu Riono) 박사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하여 민망한 사진이 게시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YLBHI)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The Jakarta Post 2020/08/20).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기회로 이용했다. 2016년 대대적인 시위로 조코위의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측근 아훅(Ahok, 본명 Basuki Tjahaja Purnama)을 결국 신성모독죄로 감옥에까지 보낸 이슬람주의 자들에 대한 탄압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중 조직에 관한 법률(Perppu 2/2017

tentang Organisasi Kemasyarakatan)’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2016년 시위를 주도한 이슬람 급진 단체인 인도네시아이슬람해방당(Hizbut Tahrir Indonesia, HTI)을 금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국가이념 뻘짜실라(Pancasila)에 위배되는 모든 단체를 재판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적대적인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Power 2018).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이 법을 적극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파인 이슬람주의자를 억압했다(Fealy 2020a). 예를 들어 12월 30일 ‘대중 조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뻘짜실라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2016년 아후 반대 시위에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급진 단체 이슬람수호자전선(Front Pembela Islam, FPI)의 활동을 불법화하였다. 정부는 이 단체의 지도자와 회원 30명 정도가 테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라는 이유도 덧붙였다(Al Jazeera 2020/12/20), 사법 절차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회단체를 금지시킨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Septiari 2021).

인구의 90% 정도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주의자가 조꼬위의 정치적 반대파라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주의자(Islamists)’란 일반적으로 이슬람 율법과 가치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변영정의당(Partai Keadilan Sejahtera, PKS)과 같은 합법단체로부터 지하드와 같은 무장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조꼬위 정부에서는 이슬람주의자를 뻘짜실라를 위배하는 극단주의자(extremist)와 동일시하여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Fealy 2020b). 이로 인해 조꼬위 대통령의 대연정(grand coalition)에 포함되지 않은 야당이자 이슬람주의 정당인 변영정의당도 극단주의 단체로 지목되어 불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Prashanth 2020).

한편 조코위 정부는 군대에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민간인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였는데, 이들에게 단순히 방역 관련 업무를 지원하거나 질서 유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정부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거리 쓰레기 청소나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권까지 부여했다(Fealy 2020a).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한 것이다.

2019년 조코위 대통령 재선 전부터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예, Power 2018; Bland 2020).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 조코위 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조치들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경찰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단속한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고,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파인 이슬람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이나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옴니버스법 통과와 전국 노동자 파업

2020년 10월 5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옴니버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극심했다. 이튿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전국적 파업과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노동계는 10월 6일부터 사흘간의 전국적 파업을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9월 30일 예고했다(Industri All 2020a).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노동자들은 예고한 파업을 실행에 옮겼다. 이후에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은 이어졌는데, 10월 20일에는 다시 한 번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Lane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은 11월 2일 법안에 서명했다. 사실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후에 자동으로 발효된다. 그런데도 법안에 서명한 것은 집권 2기 개혁 과제들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Arshad 2020). 이에 대항하여 노동계는 11월 5일 옴니버스법이 ‘현대판 노예제도’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Industri All 2020b).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노동자들은 왜 이처럼 반대하는 것일까?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취임식 연설에서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간소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여러 조치들을 모은 옴니버스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지혁 2020). 10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법은 1천 쪽이 넘는 분량에 79개의 기존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Wijaya 2020). 그중 노동계의 반발을 크게 사는 부분은 노동 유연성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노동자 해고 사유가 14가지 담겨 있었는데,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결과에 따른 해고까지 추가되어 15가지로 해고 사유가 늘어났다(Tani and Jibiki 2020). 또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시켰는데, 섹터별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며, 퇴직금을 축소하고, 초과근무 허용 시간을 하루 4시간, 일주일에 18시간까지 확대했으며, 휴식일도 일주일에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시켰다(Wijaya 2020; 이대호 2020).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축소하는 각종 조항을 담은 옴니버스법은 논의 초기부터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조코위

대통령이 정부 법안 마련을 서두르자 2020년 1월 9일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20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Akhlas 2020). 정부는 2월 12일에 옴니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날 국회 건물 앞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옴니버스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Akhlas and Ghaliya 2020).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던 옴니버스법은 정부 법안 제출 8개월 만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조코위 정부와 국회가 옴니버스법 통과를 강행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도 피하고자 했다(Wicaksono 2020). 그런데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막기 어려웠고, 2분기에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Nangoy et al. 2020). 경기 회복을 위해 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조코위는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권 2기 보수적 종교 지도자 마루프 아민(Ma'ruf Amin)을 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과 경쟁한 보수파 프라보워(Prabowo Subianto)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조코위는 2014년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옴니버스법을 통과 시키면서 보수적인 색채를 더욱 강화했다.

3. 지방선거와 정치왕조(Political Dynasties)

9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지방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어 12월 9일에 실시되었다.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손 세정제를 비치한 투표장은 전체의 50% 미만이었으나, 90% 이상의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였다(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2020).

이날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은 전국에서 9명의 주지사와, 37명의 시장과 224명의 군수를 선출했다. 1999년 민주화 이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15년에 처음 실시됐다. 지방선거에서는 인도네시아의 34개 주 중 술탄이 통치하는 족자카르타(Yogyakarta)를 제외한 33개 주의 지사도 선출한다. 33명의 주지사가 같은 날 모두 선출되는 것은 아니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9명의 지사는 2015년에 선출됐고, 7명은 2017년에, 나머지 17명은 2018년에 선출됐는데, 2020년에는 다시 2015년처럼 9명의 주지사가 선출됐다. 2017년처럼 7명의 지사를 선출하는 다음 선거는 2022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표 2> 인도네시아 주지사 선거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
서부 수마트라	아체	북부 수마트라	서부 수마트라
West Sumatra	Aceh	North Sumatra	West Sumatra
잠비	방가 불리퉁	남부 수마트라	잠비
Jambi	Bangka Belitung	South Sumatra	Jambi
리아우 제도	자카르타	리아우	리아우 제도
Riau Islands	Jakarta	Riau	Riau Islands
벵골루	반튼	람뽕	벵골루
Bengkulu	Banten	Lampung	Bengkulu
북부 칼리만탄	고론탈로	서부 자바	북부 칼리만탄
North Kalimantan	Gorontalo	West Java	North Kalimantan
중부 칼리만탄	서부 술라웨시	중부 자바	중부 칼리만탄
Central Kalimantan	West Sulawesi	Central Java	Central Kalimantan
남부 칼리만탄	서부 빠뿌아	동부 자바	남부 칼리만탄
South Kalimantan	West Papua	East Java	South Kalimantan
북부 술라웨시		발리	북부 술라웨시
North Sulawesi		Bali	North Sulawesi
중부 술라웨시		서부 누사 텡가라	중부 술라웨시
Central Sulawesi		West Nusa Tenggara	Central Sulawesi
		동부 누사 텡가라	
		East Nusa Tenggara	
		서부 칼리만탄	
		West Kalimantan	

		동부 칼리만탄 East Kalimantan 남부 술라웨시 South Sulawesi 남동부 술라웨시 Southeast Sulawesi 말루꾸 Maluku 북부 말루꾸 North Maluku 빠푸아 Papua	
--	--	--	--

인도네시아 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직위에 3선이 금지된다. 이는 지역구를 옮기더라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도시의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다른 도시 시장으로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때 주지사 등 다른 직위에 출마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시장이나 군수를 재임한 사람이 다음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0년에 실시된 9곳의 주지사 선거에서는 5명의 주지사(서부 수마트라, 잠비, 리아우 제도, 북부 칼리만탄, 중부 술라웨시)가 교체되고, 4명의 주지사(병꼴루, 중부 칼리만탄, 남부 칼리만탄, 북부 술라웨시)는 재선에 성공하였다. 교체된 주지사 5명 중 3명은 3선 금지 규정 때문에 출마할 수 없는 경우였으므로, 대다수의 주지사는 재선에 성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조꼬위 대통령의 투쟁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PDI-P)과 두 번째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골카르당(Partai Golongan Karya, Golkar)이 2020년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Gumelar 2020). 중부 자바, 발리, 북부 술라웨시 등 투쟁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지역의 시장과 군수 선거에서는 대부분 투쟁민주

당 후보가 승리했다. 예를 들어 중부 자바에서는 21곳의 시장, 군수 선거 중 17곳에서 투쟁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 발리에서는 6곳 중 5곳에서, 북부 술라웨시에서는 7곳 중 6곳에서 승리했다. 골카르당은 전국적으로 투쟁민주당보다 더 많은 곳에서 승리했다. 주지사, 시장, 군수 모두 합해 270곳에서 선거가 실시됐는데, 골카르당은 그 중 61%에 해당하는 165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독재자 수하르또가 만든 권위주의 정당이었던 골카르당의 지지가 지역 수준에서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 가문의 약진을 꼽을 수 있다(Fealy 2020a).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현역 정치인의 자녀나 배우자 등이 기록적으로 많이 출마하여 당선됐는데, 특히 조꼬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됐다. 1999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금권 정치(money politics)가 만연하게 되자 인도네시아 정치가 수하르또 독재 이전 시기(1950년대)보다 후퇴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Ufen 2006). 나아가 대부분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정치 엘리트 가문이 시장부터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장악하는 필리핀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여러 선출직 공직을 장악하는 가문이 늘어나면서 필리핀과 같은 정치왕조(political dynasty)가 출현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었다(Yoes and Trajano 2013).

2014년 당선된 조꼬위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고, 소탈한 풍모를 갖고 친 서민 정책을 펼쳐서 금권 정치나 정치왕조 출현과 같은 기존 인도네시아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Kwok 2014). 그런데 2019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조꼬위 대통령은 그러한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보수파와 연정을 구성하고 부패근절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KPK) 권한을 약화시키는 등 각종 개혁 조치들을 후퇴시키더니(이지혁 2020), 2020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아들과 사위가 각각 중부 자바의 솔로(Solo)와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Medan)에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스스로 정치왕조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드러냈다(Jiao and Aditya 2020). 특히 솔로는 조꼬위 자신이 시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했던 곳으로,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조꼬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Gibran Rakabuming)은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치인 자녀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부모의 후광 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Sukarno)의 딸 메가와띠(Megawati Sukarnoputri)는 투쟁민주당을 창립하여 부통령과 대통령을 역임했고, 메가와띠의 딸 뿌안 마하라니(Puan Maharani)는 2019년부터 국회 의장을 맡고 있다.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 대통령 아들 아구스(Agus Harimurti Yudhoyono)는 2020년 3월 아버지가 만든 민주당(Partai Demokrat) 대표가 되었다.

조꼬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과 사위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이었고, 이들이 출마하려는 솔로와 메단에는 조꼬위의 투쟁민주당 소속으로 오랜 경력을 쌓은 공천 예정자들이 있었으나, 조꼬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아들과 사위를 공천하도록 만들었다(Fealy 2020a). 심지어 선거에 출마하려면 최소 3년 동안 당원으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투쟁민주당 중앙위원회의 내규를 무시하고 입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두 사람을 출마시켰다(서지원 2020). 이는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당규를 위배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조꼬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왕조를 건설하는데 적극

적으로 나선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정치왕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치인 가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aits Times 2020/08/05).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치 수준을 후퇴시킨 지도자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Ⅲ. 2020 인도네시아 경제

2020년 인도네시아 2분기 경제성장률(GDP Growth)은 -5.3%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매도 역시 3월 한 달간 77억 달러에 이르러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는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2020년 6월 기준) 물류(-30.8%)와 관광(-22%) 분야에서 하락 폭이 컸던 반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10.9%)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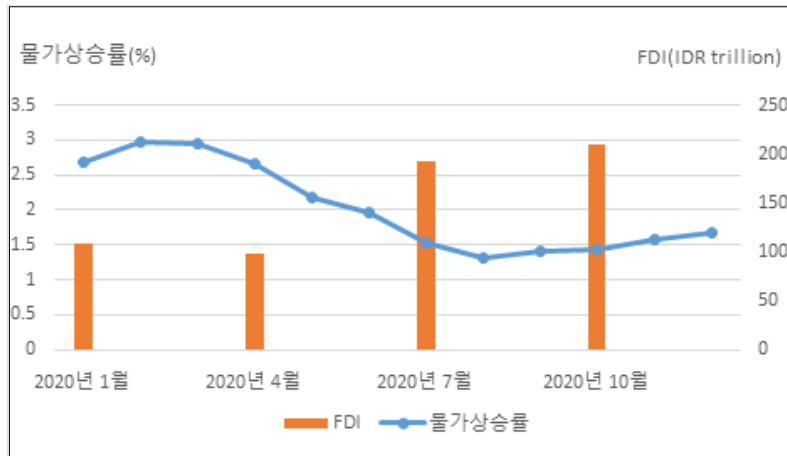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64%의 근로자가 소득감소를 경험했으며, 55%의 응답자는 식비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Sparrow 2020). 낮은 가계소득은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감소로 이어졌으며, 2020년 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평균 12%에서 9%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Kacaribu 2020). 여기에 석유, 가스, 기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비조세수입 역시 2019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Sparrow 2020).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다른 인접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말레이시아 -17%, 필리핀 -16%, 싱가포르 -13%, 태국 -12%)

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잘 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 완화조치가 시작된 5월부터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정부의 양적 완화정책으로 2020년 상반기 경상수지적자는 2019년 동기대비 1.5% 감소하는데 그쳤다. 1분기 107억 달러로 급감했던 외환 보유액은 8월 1,370억 달러로 안정된 수치를 회복됐다.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외국인투자(FDI)도 3분기부터 높은 유입량을 보였다(그림 1).

특히 5월은 라마단 이후 인도네시아 르바란¹⁾ 연휴가 있어 이 시기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의 물가상승률은 국가의 74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Olivia et al. 2020).

<그림 1> 2020년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과 FDI 유입량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 (검색일: 2021.01.02.)

1) 라마단이 무사히 끝난 것을 감사하는 기간으로, 전국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집회가 열리고, 노동자들은 휴가를 받아 성묘를 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큰 명절이다.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네시아 전문가 및 관련 연구들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효율적 규제들과 경직된 관료제 때문에 대응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Gibson et al. 2020; Sparrow 2020).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1분기에 정부예산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오히려 2019년보다도 정부지출이 감소했으며, 4분기가 되어야 지출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뒷받침한다.

1.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융시장 유동성(financial market liquidity)을 확보하여 외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연초 기준금리를 25% 낮추고 환율도 20% 가까이 낮췄다. 이에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3월 7.9%에서 7월 6.8%로 하락했다. 여기에 외부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사실 국내외 투자활동이 이미 얼어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 유동성은 예상보다 안정적이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침체된 사업경기였다(Habir et al. 2020).

이에 정부는 낮췄던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일단 코로나19에 충격받은 경제를 안전선으로 회복하기 위해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Program Pemulihan Ekonomi Nasional, PEN)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을 수정하여 보건, 사회안전망 확립,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처음 발표된 2월에는 단순한 코로나19 대응책이 아니라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었으나, 감염률이 가속화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6월

에는 GDP의 4.2%(약 7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Nazara 2020). 예산 규모가 다른 나라(태국 9.6%)와 비교해 작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예산의 실행 속도였다. 2020년 한 해 계획대비 47.4%의 예산만을 사용했고, 사회보장과 중소기업금융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8월이 되어서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예산분배가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DTKS)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개별 가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 이후로 업데이트도 되어있지 않아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제공되지 못했고, 정부 관료는 자금할당 및 지출에 절차와 책임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부패근절 위원회(KPK)와 감사원(Badan Pemeriksa Keuangan, BPK)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Gipson et al. 2020). 그 외에도 정부가 단기적인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이 주로 공공보건에 의존하고 있으며, 확진 검사나 감염경로 추적,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이동제한)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률이 계속해서 높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가 야기할 중장기적 빈곤,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Sparrow 2020).

2.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조치("Burden Sharing" scheme)

3~4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투자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기간에 중앙은행은 정부와 함께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GDP의 3%로 정해진 예산적자 규모를 6%로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적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그 규모가 큰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 하

락과 같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리고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면 궁극적으로 민간투자가 점점 빠져나가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Sparrow 2020). 실제로 양적 완화조치가 실시된 4월 인도네시아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16억 달러에 달하는 루피아를 매도하여 루피아의 가치가 2.5%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정부채권의 양에 한도를 두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였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통화기동률(monetary operation rates)을 크게 낮춰 여유 통화량을 중앙은행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보유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여기에 5월 이후 코로나19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환율도 평균수준으로 돌아왔다(Habir et al. 2020).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조치가 장기화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치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Sparrow 202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이 조치가 지속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ahman 2020b).

3. 옴니버스법

지난 5년간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코로나19 및 사업 관련 비효율적 업무절차, 불합리한 노동법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순위²⁾는 최근 2년간 190개국 중 73위에 머물

2) 사업·건축 허가, 세금 결산, 계약 집행 등 기업 환경 평가(세계은행).

러있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세계경쟁력지수 순위는 2019년 141개국 중 50위로 전년보다 5계단 하락했다. 특히 2019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대신 베트남을 투자처로 선택한 것은 뼈아픈 경험이었다(이지혁 2019).

옵니버스법은 노동시장 유연화 외에도 사업 허가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허가 과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했고, 사업 위험도에 따라 서류제출을 차별화하여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또한 기존에 공기업에만 허가한 사업 부문을 외국인 및 개인에게도 허용하도록 했고, 자유무역지대에 기존 대비 더 많은 인센티브(세금 면제, 아파트 소유 등)를 제공한다. 여기에 그동안 환경 문제로 제약이 걸려있던 투자 부문(섬의 산림 등)의 개발 조건을 완화하여 환경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나 환경계의 비판과는 달리 이 법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긍정적인 편이다. 외국 상공회의소와 세계은행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옵니버스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더욱이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투자 종류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중앙정부가 승인한 투자 사업을 지방정부가 거부할 수 있었는데, 옵니버스법은 지방정부의 거부권을 축소하여 중앙정부가 승인한 투자 사업이 실행될 가능성을 높였다(Kurlantzick 2020).

하지만 옵니버스법이 실제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또한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다양한 조치들과 입법 과정에서 초래된 노동계의 저항 등은 옵니버스법 시행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기대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Akhlis

2020). 또한 이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의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적은 3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던 것을 보면, 이번 옴니버스법 역시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전제성, 로카니 2021).

IV. 2020년 인도네시아 외교 및 한·인도네시아 관계

1. 인도네시아 외교

인도네시아는 1950년대 중반부터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으로 다자 협력을 추구하는 중견국 외교를 펼쳐 왔다(서지원 2021). 조코위 정부 역시 아세안과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외교 노선을 견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의 맹주인 인도네시아를 제 편으로 만들려는 미중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백신을 계기로 중국이 한 발 앞선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찬유 2020).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제약회사인 시노백(Sinovac)과 코로나19 백신 협약을 맺었으며, 대통령 특사인 루훗 판자이탄(Luhut Panjaitan)은 중국 외교부장 왕이(Wang Yi)를 만나 중국산 백신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Cai 2020).

같은 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다툴 울라마(Nahdatul Ulama, NU) 앞에서 연설을 했다(Emont and Mauldin 2020).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EXIM)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통신, 의료 등 주요 인프라에 7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EXIM 2020).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외교 노선에는 동참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미국의 접근방식은 강대국의 권력개입을 피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외교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첫 해외 순방의 목적지로 선택하기도 했다(Suoneto 2020).

2020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레뜨노 마르수디(Retno Marsudi)는 미-중 경쟁의 한가운데에 인도네시아가 갇혀있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Allard and Widiyanto 2020).

이밖에 인도네시아는 호주와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맺어 2020년 7월 5일 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를 통해 양국은 무역의 다각화와 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ahman 2020a).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0년 11월 15일, 제3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최종 서명됐다. RCEP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지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으로, 세계 GDP의 4분의 1과 인

구 20억 명으로 구성된 매우 큰 국제시장을 형성한다.

RCEP은 2011년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메가 FTA 개발을 처음 제안한 것에서 시작하여, 2012년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RCEP 협상 개시를 합의한 후 약 8년 만에 체결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이 과정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비아세안 교역 국가들을 포함하는 FTA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8년간 계속해서 의장 역할을 해왔다(Gultom 2020). 비록 인도가 마지막에 빠졌지만 인도와의 관계를 중재하는 데에도 인도네시아가 중심 역할을 해왔다. 협정 체결 후에도 RCEP은 언제나 델리에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Tisnadibrata 2020).

인도네시아 정부 및 주요 언론에서는 RCEP이 수출과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가 간 무역 경쟁 규모가 확대되어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없는 한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Wu 2020).

아세안 경제공동체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도 인도네시아의 고려대상이었으나, 협정에서 주요시장인 미국이 빠지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다(Tisnadibrata 2020).

3.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2012년에 시작해 2019년 11월에 협상이 끝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2020년 12월 드디어 서명이 완료되었다. 이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세 번째 FTA로, 양국은 약 90% 이상의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RCEP과 비교할 때 한국은 1.6%, 인도네시아는 3.3%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으며, 특히

온라인 게임, 유통, 서비스 시장의 개방수준을 RCEP보다 높이고, 양국이 높아진 개방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2020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Bank Bukopin)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 현금인출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시내 곳곳의 현금인출기 작동이 중단될 정도였는데, 이 부코핀 은행을 KB국민은행이 인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8월, 자카르타에는 “KB가 인수해라”라는 집회가 열렸다.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은 사람들이 KB국민은행의 인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가 강한 인도네시아에서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송중호 2020). 그리고 12월 KB국민은행이 경영권을 인수한 부코핀 은행의 주가는 5개월 사이 240% 급등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2021년 1월 부코핀 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Bosowa) 그룹이 KB국민은행이 경영권인수에 있어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하여 1조 6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자카르타 법원은 1심에서 보소와 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보소와 그룹은 KB국민은행뿐 아니라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데일리 인도네시아 2021).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인도네시아 금융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두터운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한국 정부는 2020년 한 해 인도네시아로 진단키트 포함 12억 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보냈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방역복 등을 기부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도 각종 방역용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이에 10월 13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 BNPB)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성혜미 2020).

또한 2023년까지 10조 7천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등(외교부 보도자료 2020)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교역이 축소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한 해였지만 CEPA 서명이라는 큰 성과도 거두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나가며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해로 기록될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인구당 사망자 비율도 가장 높은 편이었다. 그로 인해 집권 2기를 시작한 조코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선택은 경제 우선 정책 유지였다(Wicaksono 2020). 이를 위해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역 조치 대신 느슨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과 전문가, 야당인 소수 이슬람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여 방역 조치를 위반한 민간인을 직접 통제하도록 허용했다(Fealy 2020a). 코로나19 전염병은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조코위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옴니버스법을 밀어붙인 데서도 드러났다.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자 보호를 축소한 옴니버스법에 대해 노동계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런데도 옴니버스법은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몇 차례의 전국적

인 파업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은 11월 법안에 서명했다. 집권 1기 개혁 성향이었던 자신을 지지한 노동계와 단절한 조코위 대통령은 12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개혁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정치인 가족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정치왕조가 출현하는 것을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Fealy 2020a), 조코위의 아들과 사위가 대통령의 강한 압력과 후원 덕에 각각 중부 자바의 솔로와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병폐로 지적되는 정치왕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특히 정치왕조와 거리가 먼 개혁 성향 지도자로서 다수 유권자의 기대와 지지를 모은 조코위 대통령이 그러한 행보를 보였다는 사실은 정치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일부 조코위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양적 완화조치를 취했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오픈버스법에 서명했다. 하반기에는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전반기에 비해 2배 이상 커지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도 관찰되었다.

한편 미-중 경쟁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다. 10월에는 중국의 제약회사 시노백과 코로나19 백신 협약을 맺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같은 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미국 수출입은행(EXIM)과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EXIM 2020).

2020년 인도네시아는 외교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냈다.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후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 역할을 해 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것이다. 아

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여 세계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권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의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인도네시아 외교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0년 한 해 동안 관계가 더욱 두터워졌다. 6월에는 부코핀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지자 KB국민은행이 이를 인수하여 부코핀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12월에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진료키트를 지원하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은 우호 관계를 한층 발전시켰다.

〈참고문헌〉

- 고찬유. 2020. “美中 갈등 속 ‘상한가’ 인니... 中國방장관 전격 방문” 『한국일보』 9월 6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12330001194> (검색일: 2021.03.29.)
- 김형준. 2021. ““끝없는 1차 유행’: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전개와 정부의 대응.” 전동연 이슈페이퍼 12. <https://jiseas.jbnu.ac.kr/bbs/jiseas/2245/191306/artclView.do> (검색일: 2021.04.29.)
-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1. “인니 부코핀은행 인수 국민은행, 1조6천억원 손배소송 당해.” 1월 29일. <http://dailyindonesia.co.kr/news/view.php?no=20315> (검색일: 2021.03.29.)
- 산업통상자원부. 2020.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12월 18일.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3648 (검색일: 2021.01.14.)
- 서지원. 2021. “‘대국’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독립적, 적극적’ 외교의 추구.” 『동아연구』 80, 207-243.
- 서지원. 2020. “금수저와 창업자: 금권 시대 인도네시아의 청년정치.” 『다양성+아시아』 3(3). <http://snuac.snu.ac.kr/seacenter/?p=10854> (검색일: 2021.04.29.)
- 성혜미. 2020. “인도네시아 재난청, 한국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감사패”. 『연합뉴스』 10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7600104> (검색일: 2021.03.29.)
- 송종호. 2020. ““KB가 인수해라”..인니 부코핀銀 인수에 때 아닌 ‘학생시위’.” 『서울경제』 8월 12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JTREGC3>(검색일: 2021.01.14.)
- 외교부 보도자료. 2020. “김건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9.28-29).”

- 9월 29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504&srchFr=&srchTo=&srchWord=%EC%9D%B8%EB%8F%84%EB%84%A4%EC%8B%9C%EC%95%84&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01.14.)
- 이대호. 2020. “인도네시아 일자리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전체 개관 설명.”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11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6231> (검색일: 2021.03.27.)
- 이지혁. 2020. “인도네시아 2019: 오른쪽으로의 선회?” 『동남아시아 연구』 30(2): 39-87.
- 전제성, 앤당 로카니. 2021. “인도네시아 노동권에 대한 일자리창출법의 파장: 현지의 노동변호사 겸 활동가 인터뷰.” 『전동연 이슈페이퍼』 11호.
- Akhlash, Adrian Wail. 2020. “Environmental concerns, protests may discourage foreign investment: Moody’s”. *The Jakarta Post*. October 9.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0/09/environmental-concerns-protests-may-discourage-foreign-investment-moodys.html> (검색일: 2021.03.29.)
- Akhlash, Adrian Wail. 2020. “Labor unions protest Jokowi’s omnibus bill.” *The Jakarta Post*. January 9.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1/09/labor-unions-protest-jokowis-omnibus-bill.html> (검색일: 2021.01.11.)
- Akhlash, Adrian Wail and Ghaliya, Ghina. 2020. “Omnibus bills submitted to House, public remains in dark.” *The Jakarta Post* February 13.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

- 02/13/omnibus-bills-submitted-to-house-public-remains-in-dark.html (검색일: 2021.01.09.)
- Allard, Tom and Widiyanto, Stanley. 2020. "Indonesia to US, China: Don't trap us in your rivalry". *Reuters* September 9.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9/09/indonesia-to-us-china-dont-trap-us-in-your-rivalry.html> (검색일: 2021.01.15.)
- Arshad, Arlina. 2020. "Indonesian President Joko signs contentious omnibus Bill into law" *The Straits Times* November 3.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indonesia-president-jokowi-signs-contentious-omnibus-bill-into-law>(검색일: 2021.01.11.)
- Bland, Ben. 2020. *Man of Contradictions: Joko Widodo and the struggle to remake Indonesia*. Lowy Institute Paper, Penguin Specials.
- Cai, Jane. 2020. "Vaccine diplomacy: China, Indonesia agree to cooperate in fight against Covid-19". *The Corona Virus Pandemic* October 2020.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04986/vaccine-diplomacy-china-indonesia-agree-cooperate-fight> (검색일: 2021.01.14.)
- Emont, Jon and Mauldin, William. 2020. "In Indonesia, Pompeo Urges Muslims to Challenge China's Xinjiang Policies".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9. <https://www.wsj.com/articles/in-indonesia-pompeo-urges-muslims-to-challenge-chinas-xinjiang-policies-11603970520> (검색일: 2021.01.15.)
- EXIM. 2020. "EXIM, U.S. Delegation Conclude Visit to Republic of Indonesia with Stenghtened Economic Investment

- Commitment.” October 25. <https://www.exim.gov/news/exim-delegation-conclude-visit-republic-indonesia-strengthened-economic-investment-commitment> (검색일: 2021.01.15.)
- Fealy, Greg. 2020a. “Jokowi in the Covid-19 Era: Repressive Pluralism, Dynasticism and the Overbearing State.”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6(3): 301-323.
- Fealy, Greg. 2020b. “Jokowi’s repressive pluralism.” *East Asia Forum* September 27. <https://www.easiaforum.org/2020/09/27/jokowis-repressive-pluralism> (검색일 2021.01.08.)
- Ghaliya, Ghina. 2020. “Most Indonesians dissatisfied with administration's COVID-19 response, survey finds.” *The Jakarta Post* May 27.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5/27/most-indonesians-dissatisfied-with-administrations-covid-19-response-survey-finds.html> (검색일: 2021.01.08.)
- Gibson, John and Olivia, Susan. 202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ovid-19 On Life Expectancy and Poverty in Indonesia.”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6(3): 325-344.
- Gultom, Donna. 2020. “RCEP: The Opportunity for Indonesia and Steps of Its Implementation, An Insider’s Perspective” December 8. *Center for Indonesia Policy Studies*. <https://www.cips-indonesia.org/post/rcep-the-opportunity-for-indonesia-and-steps-of-its-implementation-an-insider-s-perspective> (검색일: 2021.03.29.)
- Gumelar, Galih. 2020. “PDI-P, Golkar bask in glory at regional polls.” December 11.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2/11/pdi-p-golkar-bask-in-glory-at-regional-polls.html>

(검색일: 2021.03.21.)

- Habir, Manggi Taruna and Wardana, Wisnu. 2020. "Covid-19's impact on Indonesia's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Perspective*. ISEAS-Yusof Ishak Institute
- Industri All. 2020a. "National strike in Indonesia to stop controversial Omnibus law." September 30. <http://www.industrialunion.org/national-strike-in-indonesia-to-stop-controversial-omnibus-law> (검색일: 2021.01.11.)
- Industri All. 2020b. "Unions fil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Omnibus law calling it 'modern slavery'." November 5. <http://www.industrialunion.org/unions-file-constitutional-challenge-against-omnibus-law-calling-it-modern-slavery> (검색일: 2021.01.11.)
-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2020. "Findings from Indonesia's 2020 Regional Head Elections." December 23. <https://www.ifes.org/news/findings-indonesias-2020-regional-head-elections> (검색일: 2021.03.25.)
- Jefriando, Maikel and Suroyo, Gayatri. 2020. "Indonesia's Widodo defends COVID-19 record, chides 'polemics'." *Reuters* October 4.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indonesia-presiden-idUSKBN26P03C> (검색일: 2021.01.08.)
- Jiao, Claire and Aditya, Arys. 2020. "Indonesia May Have a New Political Dynasty With Jokowi's Family." *Bloomberg* December 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2-07/indonesia-may-have-a-new-political-dynasty-with-jokowi-s-family> (검색일: 2021.01.15.)

- Kacaribu, Febrio. 2020. "Economic Challenges Facing Indonesia" OECD webinar presentation on Tax Challenges and Reforms to Finance the Covid-19 Recovery and Beyond, October 1.
- Kurlantzick, Joshua. 2020, "A Controversial Omnibus Law Could Spell Trouble for Indonesia's Democracy". *World Politics Review* December 11.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29281/a-controversial-omnibus-law-could-spell-trouble-for-indonesian-democracy> (검색일: 2021.01.12.)
- Kwok, Yenni. 2014. "With the Election of Joko Widodo, Indonesia Writes a New Chapter." *Time* July 23. <https://time.com/3020999/indonesia-joko-widodo-jokowi-declared-president> (검색일: 2021.01.14.)
- Lane, Max. 2020. "Protests Against the Omnibus Law and the Evolution of Indonesia's Social Opposition." *ISEAS Perspective* 128. November 9.
- Nangoy, Fransiska and Diela, Tabita and Jefriano, Maikel. 2020. "Indonesian economy shrinks for first time since 1999 in second quarter." *Reuters*. August 5.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economy-gdp/indonesian-economy-shrinks-for-first-time-since-1999-in-second-quarter-idUSKCN2510DK> (검색일: 2021.01.11.)
- Nazara, Suahasil. 2020. "Financing the Responses to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Presentation at th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June 10. <https://www.covid19indonesia.net/events/financing-the-responses-to-covid-19-pandemic-in-indonesia> (검색일: 2021.01.10.)

- Olivia, Susan and Gibson, John and Nasrudin, Rus'an. 2020. "Indonesia in the Time of Covid-19."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6(2): 143-174.
- Parameswaran, Prashanth. 2020. "Interview: Indonesian Politics During Jokowi's Second Term." *The Diplomat* March 10. <https://thediplomat.com/2020/03/interview-indonesian-politics-during-jokowis-second-term> (검색일 2021.01.08.)
- Power, Thomas P. 2018. "Jokowi's Authoritarian Turn and Indonesia's Democratic Decline."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4(3): 307-338.
- Purdey, Jemma. 2016. "Political families in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 Research* 24(3): 319-327.
- Rahman, Dzulfiqar Fathur. 2020a. "RI to boost export to Australia as IA-CEPA enters into force." *The Jakarta Post* July 07.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7/07/ri-to-boost-export-to-australia-as-ia-cepa-enters-into-force.html> (검색일 2021.04.27.)
- Rahman, Riska. 2020b. "BI to remain standby buyer for Indonesia's government bonds in 2021." *The Jakarta Post* August 19.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8/19/bi-to-remain-standby-buyer-for-indonesias-government-bonds-in-2021.html> (검색일 2021.01.11.)
- Reporters Without Borders. 2020. "Indonesia used Covid-19 to silence criticism of government." May 6. <https://rsf.org/en/news/indonesia-used-covid-19-silence-criticism-government> (검색일: 2021.01.08.)
- Septiari, Dian. 2021. "Ban on FPI could backfire on government."

- The Jakarta Post January 5.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1/01/04/ban-on-fpi-could-backfire-on-government.html> (검색일: 2021.03.30.)
- Syakriah, Ardila. 2020. “What went wrong with RI’s virus response?” *The Jakarta Post* December 31.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0/12/30/what-went-wrong-with-ris-virus-response.html> (검색일 2021.01.07.)
- Sparrow, Robert and Dartanto, Teguh and Hartwig, Renate. 2020. “Indonesia Under the New Normal: Challenges and the Way Ahead.”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6:3, 269-299.
- Suoneto, Noto. 2020. “The Challenges Facing US-Indonesia Relations Post-Trump” *The Diplomat* November 9. <https://thediplomat.com/2020/11/the-challenges-facing-us-indonesia-relations-post-trump> (검색일: 2021.01.12.)
- Tani, Shotaro and Jibiki, Koya. 2020. “Jokowi signs controversial omnibus bill into law: Labor unions, students and Islamic groups have voiced objections.” *Nikkei Asia* November 3. <https://asia.nikkei.com/Politics/Jokowi-signs-controversial-omnibus-bill-into-law> (검색일 2021.01.11.)
- Tisnadibrata, Ismira Lutfia. 2020. “Indonesia banks on RCEP” *Bangkok Post* July 6.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946428/indonesia-banks-on-rcep> (검색일: 2021.01.12.)
- Yoes, C. Kenawas and Trajano, Julius Cesar. 2013.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Political dynasties in democratic states.”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https://www.rsis.edu.sg/rsis-publication/idss/1908-indonesia-and-the-philippines/#.X_8pNgzY2w (검색일: 2021.01.14.)
- Ufen, Andreas. 2006. "Political Parties in Post-Suharto Indonesia: Between politik aliran and 'Philippinisation'." GIGA Working Papers No. 37.
- Wicaksono, Raden Mas Try Ananto Djoko. 2020. "Examining the Policies and Prioritie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Response to COVID-19." Pusat Penelitian Politik. August 28. <http://www.politik.lipi.go.id/kolom/kolom-2/politik-nasional/1410-examining-the-policies-and-priorities-of-the-indonesian-government-in-response-to-covid-19> (검색일 2021.01.11.)
- Wijaya, Callistasia. 2020. "Indonesia: Thousands protest against 'omnibus law' on jobs." *BBC News*. October 8. <https://www.bbc.com/news/world-asia-54460090> (검색일: 2021. 01.11.)
- Wu, Chien-Huei. 2020. "ASEAN at the Crossroads: Trap and Track between CPTPP and RCEP"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3(1): 97-117.

(2021.01.15. 투고, 2021.01.23. 심사, 2021.04.26. 게재확정)

<Abstract>

Indonesia 2020:
Democracy and Economy Threatened by COVID-19

SHIN Jae Hyeok · PARK Heekyung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major issues that have arisen in Indonesia during the year 2020 and analyze their impact on Indonesia's politics and economy. The damage situation in Indonesia, when COVID-19 hit the world, was serious, and as a result, the people's disappointment in the Jokowi government was also great. However, President Jokowi prioritized the economy, rather than curbing the spread of the epidemic with strong quarantine measures. He strengthened control over the media, opposition parties, and the people. He also passed an omnibus bill in October to promote investment. Workers started nationwide protests and strikes against the omnibus bill that will reduce protection and benefits for the workers. Local elections were held in December, and many children of incumbent politicians were elected. President Jokowi's son and son-in-law also won mayoral elections. Meanwhile, Indonesia suffered an economic downturn despite the Jokowi administration's policy of prioritizing the economy. However, compared t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he magnitude of economic damage was not significant. In particular, from the second half of the year,

38 동남아시아연구 31권 2호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d sharply.

Key Words: Indonesian Politics, Indonesian Economy, Indonesian Diplomacy, Korea-Indonesia Relations, COVID-19, 2020 Indonesian Local Elections, Joko Widodo, Omnibus Law